

금호타이어 채권단-박삼구 회장 타협점 찾나

채권단 제3자 양도 금지 조치 해석파라 합의 가능성

박 회장 경영의지 관건...광주정충 “中 업체 매각 안돼”

금호타이어 인수 방법을 둘러싸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는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타협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지역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채권단에 따르면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된 우선매수권 부여 약정서가 채권단과 박 회장 간 체결된 것은 2010년 5월 31일의 일이다.

당시 채권단은 ‘형제의 난’으로 몸살을 앓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삼구·찬구 회장간 계열 분리하기로 하고 박삼구 회장에게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맡기면서 우선매수권도 부여했다.

이 때 채권단이 현재 논란이 된 제3자 양도 금지 조항을 둔 것은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타인에게 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는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

한 데 따른 것이지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를 보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호타이어를 경영할 의지만 보인다면 컨소시엄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회장은 우선매수권의 양도 제한의 목적에 대해 채권단 측과 비슷한 이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으로 ‘장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호타이어를 경영할 의지만 보인다면 컨소시엄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 회장은 우선매수권의 양도 제한의 목적에 대해 채권단 측과 비슷한 이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박 회장이 채권단 측에 보낸 공문에서 제한의 취지를 ▲금호타이어를 경영하지 않으면서 우선매수권만을 제3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컨소시엄의 구성 결과 금호타이어의 경영을 지배할 수 없게 되거나 ▲금호타이어

의 경영을 지배하는 척하다가 1년 이내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경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결국 박 회장이 채권단의 우려를 불식하고 계속 경영하겠다는 뜻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채권단 측에 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컨소시엄 구성안에 대한 논의 없이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자금조달 계획을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양측이 논의를 벌일 기회조차 없는 상태다. 게다가 박 회장 측이 매각조치 정치 가치분신정까지 낼 것으로 알려져 소송으로 변질 경우 양

측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한편 지역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금호타이어 중국업체에 대한 매각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금호타이어의 중국업체에 대한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과거 쌍용차의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매각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금호타이어의 더블스타에 대한 매각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상의회와 광주시 역시 조만간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반대하는 성명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그룹 1600억 외자 유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00억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인 금호홀딩스(대표 김현철)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중국의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이 16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두 그룹은 호텔,

리조트 개발, 지상조업, 항공정비사업(MRO), 케이터링 등 항공 관련 사업 전반에서 지속해서 제휴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작년 12월 서울에서 아남 단 HNA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양그룹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삼성, 파리에 QLED TV 글로벌 론칭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사장)이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전시장에서 열린 ‘삼성 QLED TV’ 글로벌 론칭 행사에서 컨텀닷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TV인 ‘QLED’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 활용도 낮다

광주 7.9%·전남 6.7% 그쳐...전국 평균 8.3% 밑돌아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부 지원사업 활용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소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이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정부 지원사업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활용도’는 광주 7.9%, 전남 6.7%로 전국 평균 8.3%보다 낮았다.

지원사업 활용도는 전체 중소기업 수 대비 지원사업 활용기업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활용도는 17개 광

역시도 중 세종이 9.4%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1%로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들의 ‘범정부 지원사업 활용도’는 광주 11.1%, 전남 8.9%로 전국 평균 12.3%보다 낮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가 15.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6.1%로 가장 낮았다.

대표적인 중소기업청과 범정부 지원사업으로 창업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R&D(연구·개발) 지원, 수출역량 강화와 전시회 참가, 해외 유명규격 획득 등 수출 지원, 벤처창업펀드 지원, 시설회관과 주차장 설치 등 전통시장 지원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김진형 광주·전남중기청장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부정책 활용도가 낮아 안타깝다”며 “정책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전 직원이 정책세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33.00 (-0.78) 금리 (국고채 3년) 1.76% (0.00)

↓ 코스닥 608.68 (-5.44) ↓ 환율 (USD) 1143.60원 (-5.20)



교통·교육의 ‘용봉신안고운하이플러스’

고운건설 303세대 공급...광주 첫 생활비품 교체 서비스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고운건설(주)은 오는 17일 ‘용봉신안고운하이플러스’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316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용봉신안고운하이플러스는 지하 2층~지상 27층으로 구성된 3개 동이며 69㎡ 201세대, 84㎡ 102세대, 총 303세대로 구성된다. <투시도>

용봉신안고운하이플러스는 뛰어난 교육환경과 교통 등 입지 조건이 강점이다. 광주시 북구 신안동 태봉초·용봉초·경신중, 경신여고, 중앙여고, 전대사대부중·고 등 명문학군이 위치해 있고 용봉IC, 서광주IC 등의 편리한 교통으로 시내·외 입출입이 용이하다. 비엔날레, 중외공원, 문화예술회관, 기아 챔피언스필드 등과 인접해 있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 인근에서 가장 높은 27층 고층의

아파트로 채광, 통풍이 뛰어나고 무등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조망을 갖고 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청약통장 유무, 소득제한 등을 따지지 않는 등 청약자격제한이 없으며 매월 납입하는 월 임대료도 없어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안정적인 임대를 보장한다.

업체 관계자는 “고운건설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업형임대아파트인 만큼 공공임대와 달리 수준 높은 품질과 시스템 을 제공할 것”이라며 “광주지역 최초로 생활비품의 교체와 보수를 실시만 받고 해주는 ‘하우스 리페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2월이며,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744-17번지 화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문의 062-529-8100. /김대성기자bigkim@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합의

금호타이어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밤 22차 본교섭을 열고 2016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6월21일 ‘단체교섭 교섭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9개월간 장기간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열고 임금 인상, 격려금, 임금체계 조정 등을 논의했다.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 인상 2.5%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 등이다.

특히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말로 정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의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설명회를 하고 19~20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자연의 소리...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Hye Eun Lee
2017 Dinner Show